지상백고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환경보살이 돼야 지구가 살아납니다”



법만 스님은… 1982년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같은 해 10월 사미계를, 1986년 9월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운사에서 포교 · 재무국장 등의 소임을 맡았고 1995년부터는 참당암에 선원을 개설하고 선원장으로서 대중들과 함께 정진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8년간의 선운사 주지소임을 회향하고 불교환경연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글자를 보게 된다. 마주친 글자 앞에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지만 요새는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 마주했던 많은 글 중에서 한참 동안 몸과 마음이 붙잡힌 것이 있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어디서 한 번은 본 것 같고, 또 들은 것 같은 이 글을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느낀 전율은 아직도 깊이 박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緣起)와 상생(相生)을 온전하게 담아낸 이 글을 만난 곳은 불교환경연대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지를 단적으로 담아낸 글에는 뭔가 단단한 신념과 의지가 가득했다.

불교계 유일의 환경운동단체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만나기 위해 고창 선운사 참당암으로 향했다. 여름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암자는 단정했다. 대중들이 여법하게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느낌이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기 전에도 참당암에서 정진했고 8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다시 참당암으로 돌아와서도 전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를 끝내고 2015년 7월 5일 시작한 지장참회 천일기도를 벌써 세 번 진행했고 네 번째 천일기도를 하고 있다. 100여 명으로 시작한 기도대중은 700여 명까지 늘었다. 안거 때마다 10명 안팎의 수좌들이 화두를 들고 있는 참당선원의 기세도 여전했다. 수행과 기도를 강조하는 스님의 출가인연부터 확인했다.

生死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생사(生死)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등이 궁금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집 근처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죠. 그렇게 지내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선운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스님은 선운사에서 대중스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스님이 되면 생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출가를 결심했다. 스님은 선운사에 오기 전까지 철저한 불교 문외한이었다고 한다. 관련 책이라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본 것이 전부였다.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고창읍내에서 선운사로 오는 버스가 하루 2대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시골의 한가로운 절이었지요. 그래도 참 운치 있고 좋았어요. 다만 먹고 사는 것은 참 힘들었죠. 매일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밭에서 일하고 도량 청소하고 노스님들 수발하고 그랬습니다.”

스님은 출가 후 3년여 동안 전국 사찰을 둘러봤다고 한다. 어디든 가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맘 편히’ 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다니고 나서야 방랑기가 없어진 것 같다며 스님은 웃었다.

“사미계를 받고는 바로 선방에 갔습니다. 그땐 정말 견성(見性)하겠다고 다짐하고 갔습니다. 부처님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도 누구의 가르침이나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깨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전도 안 봤습니다. 처음 간 곳이 통도사 선원이었습니다. 이후에 해인사와 송광사에도 갔습니다. 삼보(三寶)사찰을 차례대로 간 것이죠. 해인사 선원에는 성철 스님과 혜암, 법전 스님이 계셨고 일타 스님도 가끔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라성 같은 어른들 밑에 있었죠. 해인사 선원에 있을 때 공부가 가장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중 어떤 경계라고 할까 그런 것에 부닥쳤습니다. 생사 없는 도리 같은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고 눈만 크게 뜨면 보일 것만 같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2015년 불교환경연대 대표 맡아
연기법 입각한 환경운동 전개해
녹색사찰운동으로 생활실천 유도
올 초 회원 배가 캠페인 ‘성공적’
“환경운동 통해 佛法 실천합시다”

법만 스님은 “그때 어른스님들께 점검을 받았어야 했는데, 혼자 하겠다는 생각에 끙끙 앓기만 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가 가장 아쉽고 후회스럽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몇 군데의 선방을 더 다니다 선운사에서 재무 소임을 맡았다. 은사스님을 도와 살림을 챙긴 것이다.

“선원에서 정진하면서 본분사(本分事)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福)이 부족하구나. 복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과 포교를 이어가던 중 스님은 1995년 동안거부터 참당암에 선원을 열고 수좌스님들과 함께 정진을 이어갔다. 틈틈이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을 찾아 공부에 대한 의문을 해소했다. 스스로의 공부와 함께 대중외호에도 힘썼던 스님은 2007년 선운사 주지를 맡아 사격(寺格)을 일신했다.

전국의 교구본사 중 처음으로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조성해 승려복지를 시작했고 불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여러 곳의 고창군 복지시설을 운영했다. 또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을 열어 스님들의 공부환경을 조성했고 선운문화제를 매년 열었으며 템플스테이 등도 활성화시켰다. 고창읍내 불교회관 불사도 법만 스님이 시작했다. 조용하던 선운사가 들썩이면서 호남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법만 스님에게 “호남에 본사가 선운사밖에 없느냐”며 부러워했을 정도. 하지만 스님은 참당암으로 돌아왔다. “선운사 발전의 토대를 닦았으니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법만 스님다운 선택이었다. 참당암에서 수행과 기도를 재개할 때 찾아온 인연이 바로 불교환경연대였다.

불교와 환경, 願力과 信心

법만 스님은 2015년 가을 공동대표 소임을 맡으면서 불교환경연대와의 인연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갔다. 2019년 2월부터는 상임대표로서 불교환경연대를 이끌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2001년 수경 스님을 중심으로 창립하여 ‘삼보일배 오체투지’라는 불교적 수행법으로 거대 자본, 거대 권력으로부터 생명과 미래를 지키고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2001년 본부 창립에 이어 2008년 광주전남지부, 2018년 울산지부, 2021년 출범한 부산지부와 올해 출범예정인 전북지부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불교환경연대는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 생명의 벗이 되는 환경보살의 길을 더욱 힘차게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환경연대는 가장 불교적인 해법으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불교환경연대는 2018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찰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녹색사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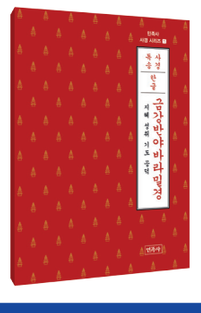
13면에 계속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